

"영화 '하비비' 팔레스타인 청춘남녀의 사랑·희망 담았다"

수잔 유세프 감독·박용준 인디고서원 편집장 대담

국제신문 [이메일](mailto:iej09@kookje.co.kr) 2011-10-11 20:42

덧글 (0) 좋아요 (0)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첫 장편영화 '하비비'로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초청된 수잔 유세프(왼쪽) 감독이 부산 영화의전당 게스트라운지에서 인문학 운동을 주도하는 인디고서원의 박용준 편집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세계 곳곳 누비며 제작비 모아... '팔' 자치정부 첫 공식 지원
- 이스라엘 입국불허로 고비도
- 영화에선 詩가 중요한 역할
- 나 같은 신인감독의 작품, BIFF 등 잇단 초청은 기적

영화제의 핵심은 결국 영화다. 영화는 감독이 만든다. 경력 많고 명성 높은 감독에게도 새 영화를 한 편 완성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아시아의 소외된 땅을 찾아다니며 힘겹게 자신의 첫 영화를 만든 신인 감독에게 그 어려움이란 말할 수 없이 컸을 테다.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아시아 영화의 창 부문에 자신의 생애 첫 장편 '하비비'로 초청된 수잔 유세프(34·미국) 감독을 10일 만났다. '하비비'는 척박한 고난의 땅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촬영한 독특하고 인상 깊은 사랑 이야기였다. 게다가 이 영화를 만든 새내기 감독 유세프의 '좌충우돌 장기간 고군분투 영화 제작기'는 영화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때마침 부산 인문학운동의 선봉인 인디고서원의 박용준(29) 편집장이 유세프 감독과 함께 있었다. 둘은 인디고서원의 넓은 국제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라 했다. 박 편집장에게 유세프 감독의 대담자로 나서달라고 즉석에서 요청했고, 그는 친구의 영화를 위해 기꺼이 나서주었다. 대담 장소는 영화의전당 1층 게스트라운지였다.

통합검색 | 검색

re : 이해성님!!조폐공사 사장 님? 재직시 영청난 ...

독자참여 게시판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시민기자글쓰기
인사 | 모임 | 개업 | 결혼 | 출산 | 동정 | 부음
산행안내 | 산행후기 | 산행사진 | 등산·낚시가이드

오늘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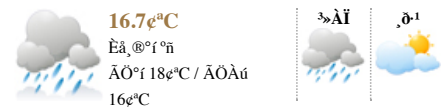
카다피 사망 부산세계불꽃축제 부산민자동 물원 더파크 박영석 대장 실종 은행권 급여·배당잔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비상 검경 SNS 단속

- 종합 경제 사회 생활 스포츠

부산 민자동물원 '더 파크' 내년 문 열듯 MC몽, "난 이미 죽은 사람...아버지는 시... 헤어진 여자친구 애인 차량에 방화 건설회사서 수뢰 부산교육청 공무원 2명 ...

부산지법 "채포과정 위법엔 음주측정 거부... 은행권 `급여·배당잔치' 물거품되나 술 병마개 이용한 경품행사 금지된다 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 처분

날씨 | 10월 11일



[국제시단]

- 지귀(志鬼)의 사랑/박영식
- 지팡이-양말 빨래 /최원준

[그림으로 읽는 책 한권]

- 너는, 가슴으로 날아 기른 우리말이야
- 호랑이에 맞은 코끼리 "내 코 좀 봐"

[리뷰]

- 연일 인기몰이 연극 '에쿠우스'
- 뮤지컬 '산 채로 말린, Stuffed'

[문화스캐치]

- 경상대 전통춤 전공자들, 생애 첫 자신의 이름으로 ...
- 감수성·협동심 높이는 초등생 합창 축제

[마독소식]

- 박정환, 후지즈배 우승
- 2011 부산·서울 프로기사 초청교류전 6일 개최

[새 책]

- 거인들의 시대(김성한 역사 에세이) 외
- 뫼렌의 가로등(변소영 소설집) 외

[아침의 갤러리]

박용준 인디고서원 편집장(이하 용준)=자기 소개를 좀 해달라.

수잔 유세프(이하 수잔)=올해 서른 네 살인데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레바논, 어머니는 시리아 사람이다. 고교를 마치고 뉴욕영화학교에 합격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웃음) 못 가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대학을 마친 뒤 어떤 내면의 이끌림에 따라 혼자 레바논의 (나의 근원이 있는) 베이루트로 갔다. 2년 동안 살면서 교사와 기자 활동을 했다. 지금은 중국인 남편과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다.

용준=그런데 어떻게 영화감독이 된 건가.

수잔=베이루트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정령당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많이 접했고 친구도 사귀었다. 영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텍사스로 돌아가 영화학교에 들어갔다. 이때 이미 '하비비'에 대한 구상과 기초작업은 있었다. 영화학교 학생시절이던 2004년 학자금을 1000달러 융자받아서 팔레스타인으로 가 제법 촬영을 했다. 하지만 영화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용준=이 영화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식허가와 첫 공식 촬영지원을 받은 영화라고 들었다.

수잔=그렇다. 팔레스타인에서 '하비비'를 찍는 작업이 워낙 힘들었다. 미국에 있는 크고 작은 재단을 다니며 제작비 지원을 따내야 했다. 그것만으론 턱없이 모자라 세계 곳곳을 쫓아다녔다. 폴브라이트재단의 지원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후원활동이 꽤 있는 네덜란드로 가서 팔레스타인 전문가 지원을 받은 것은 천운이었다. 그뒤에도 도하 트라이베카영화제, 두바이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를 돌며 어렵게나마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후원은 받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에 관한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용준=고비도 많았겠다.

수잔=2009년 막바지 촬영을 앞두고 이스라엘 정부가 입국허가를 주지 않았다. 그동안 받은 솔한 지원금의 만기는 다가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현지에서 17일 만에 마지막 촬영분을 마무리했다. 2004년 시작해 촬영은 2009년에 끝났고 최종완성은 2011년이였다. 이렇게 완성한 영화에 대해 BIFF는 어떤 영화제보다 신속하게 초청을 해줬다. 그리고 올해 베니스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에도 초청됐다. 나 같은 신인감독의 영화를 베니스, 토론토, 부산에서 틀 수 있었던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영화제는 나 같은 신인감독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

용준=나는 팔레스타인 청춘남녀의 사랑을 다룬 '하비비'를 보면서 거칠고 척박한 현실에 발 붙이고 사는 인간 속에 내재하는 초월성 그리고 영원성을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독이자 원작자로서,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수잔=남자주인공 카이스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사는 대학생 출신 막노동꾼이다. 현실에서는 패배자이고 무기력해보이지만 시(詩)를 잊지 않는다. 여자주인공 레일라는 강인하고 주체적이지만 현실의 속박을 이겨낸다는 것은 버겁다. 이 둘을 통해 나는 희망이 없는 팔레스타인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그리고 싶었다. 이 영화에선 시가 중요하다.

용준=BIFF에 처음 온 느낌은.

수잔=큰 영화제라 그런지 행정이 어수선한 면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관객과의 대화도 가졌는데, 관객의 수준과 호응은 최고다. 인디고서원의 친구들을 직접 만난 것도 정말 좋았다.

관련기사	BIFF 초전, 부산국제영화제
<p>감독 장진·배우 류현경, BIFF 폐막식 사회 ...</p> <p>하얀 벚꽃과 희미한 담배 연기</p> <p>"영화인 마을 조성·영진위 활용 ... 영화도...</p>	<p>"일본 3·11 대지진 진실 알려려 다큐 제작"</p> <p>오늘의 BIFF 행사(10/12)</p> <p>영화제 추억담기 'BIFF로드'생긴다</p>

- 숲 속에서 길을 묻다·최영수 작
- 가을향기II-이미영 작

[아침의 시]

- 늙은 식사 /양문규
- 초승달 기타 /손택수

[어린이책동산]

- 한글창제 물리싼 음모 외
- 자연을 만친 인간에 대한 복수 외

[예술인들이 쓰는 종교칼럼]

- 순교자의 달을 보내며 /정경수
- 방심의 호된 일격·정전과 절전 /정경수

[이 책의 즐거움]

- '글은 곧 인격이자 마음' 격언의 참뜻 보여줘 /정훈
- 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이지선

[이 한편의 시조]

- 굴뚝의 노래 /민병관
- 노송(老松) /류진

[이기섭 7단의 토요일바둑이야기]

- 2011 바둑리그 8라운드 제2국
- 제16회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결승

[이상용의 시내 아고라]

- 영화의전당 가는 길
- 도가니 현상 '정치의 예술화'

[잠깐읽기]

- 청년들에 던지는 7명의 조언 외
- 16년간 변역한 사마천의 사기 외

[조봉권 기자의 문화현장]

- 함께 가야 함께 웃는다
- BIFF, 꿈꾸던 그날을 맞다

[On Screen, On Air]

- BIFF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참가자 작년보다 24% ...
- BIFF 숙박시설 26일까지 예약

표수풀이 -

- 표수풀이 - 2011년 10월 21일
- 표수풀이 - 2011년 10월 20일

이기섭 7단의 바둑칼럼 <

- 2011 부산·경남 프로기사초청교류 2차전
- 2011 부산·경남 프로기사초청교류 2차전

임형식의 한자 박물관지(博物誌) <

- 比肩
- 貪慾

심문섭의 소곤소...



디지털 세상에서 침...

김문기의 날뛰는 ...



유민도(流民圖), 기...

기획시리즈

[핫이슈]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시아 역대 통합기구 만들어야"
"영화 '하비비' 팔레스타인 청년남녀의 사..."

화려한 영화의 전당 눈길 끌기는 성공 ... 내실 ...
이용관(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성공 못..."

- ▶ 육식동물 50여마리 탈출, 48마리 사살 대소동
- ▶ 中, '죽어가는 사람 방치' 처벌 논란
- ▶ 부산경찰, 히로뽕 판매 ·투약 32명 검거
- ▶ 뉴질랜드 정당, 오줌 마신 후보 자격 박탈
- ▶ 헤어진 여자친구 애인 차량에 방화
- ▶ 옛 여자친구 집 절도 후 불 지르고 여장 도주
- ▶ 형사 사칭 종고차 빼앗은 30대 구속
- ▶ 강해 민간헬기 추락...기장 · 부기장 2명 경상
- ▶ 뉴질랜드男 "나도 잡혀먹힐까 두려웠다"

KRO Verhalen

De verhalen uit onze programma's lees je in ons nieuwe magazine.
www.kro.nl/le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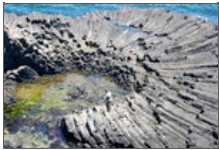
Danone Danio Specials

Al jaren geliefd vanwege de volle, rijke smaak. Dat wordt genieten!
www.Danio.nl/Specials

한국 여자와의 데이트

한국여성과의 데이트를 꿈꾸시나요? 정회원 가입으로 채팅 시작하세요
www.KoreanCupid.com

Google 광고



양남 주상절리



신용카드, 국을 꿰어 버리자



블랙이글의 멋진 비행!



"추위야 반갑다"

기사주소복사 스크랩 인쇄

이 기사가 좋아요 **추천합니다**

일시적 지연, 새로고침을 누르시면 댓글이 보여집니다. [새로고침](#)

'슈스케3' 크리스·신지수 탈락... 울랄라세션 ...
 '슈스케 3' '위탄 2' 나란히 최고시청률 경신
 '슈퍼스타K 3' 미션곡, 음원차트 석권
 '나가수' 바비킴, 부가킹즈와 1위... 첫등장 조규...
 바비킴 "'나가수'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
 '나가수' 김정호 1위·조관우 탈락... "홀가분해"
 슈퍼스타 K 3, Top 10 가려졌다... 투개월, 신지...
 SBS '기적의 오디션', 한 점차 소름 돋는 박빙의 ...

제3회 국제희망특강
 오페라 '투란도트'
 무료건강교실 - 가슴통증과 심장병에 대해

K busaninews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광저수지 주변 100여그루의 은행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면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풍기고 있다.
<http://t.co/MvUgg5XR>
 15 hours ago · reply · retweet · favorite

K busaninews 울산대학교(총장 이철) 반구대 암각화 유적보존연구소는 "울주군 언양읍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가 2000년 이후 훼손 속도가 그 전보다 두 배나 빨라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http://t.co/Oj1PNSMn>
 15 hours ago · reply · retweet · favorite



Join the conversation

제휴사 노컷뉴스 어린이문화체험학교 부산과학기술협회 제휴서비스 구인구직 도서 부동산 온포스-스타일 국제신문대관안내

회사소개 진화안내 광고안내 구독신청 독자투고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 모바일국제신문

Copyright 2011. All rights reserved by 국제신문.